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박혜숙 (Park, Hye-sook)*

(E-mail : parkhye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4년 7월 4일

논문심사일 : 2014년 7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8월 27일

* 학위취득대학 : Michigan State University

현직: 호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초4 및 중1 패널 데이터(KCYPS)를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2차년도와 1차년도의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2차년도 다문화 수용성 예측변인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1차년도의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시민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4패널에 비하여 중1패널의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은 낮았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성별, 부모교육, 해외여행을 제외하고 독서시간, 시민의식, 성취도는 다문화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초4시기에 얻어진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초5때의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시민의식만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차년도 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하였다. 중1패널의 경우, 부모교육, 중2해외여행경험 및 중2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중2독서시간, 및 중2시민의식은 중2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으며, 독서시간의 효과는 매우 작았다. 2학년 때의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 1학년 때의 시민의식과 해외여행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차년도 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하였다.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외활동과 시간사용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다문화 수용성, 시민의식, 독서시간, 해외여행, 성취도, 성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물리적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정보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부상하면서 세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방면에 확산되고 있고, 지구촌시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전 인류가 상호 공존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국가, 인종, 개인에 대한 존중 및 평화, 인권 등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지은립 2007; 박혜숙·원미순 2010).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문화적 소양과 다차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양한 외국인들은 물론 생활양식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해야 하고 더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적 수용성 관련 변인을 탐색하여 문화적 수용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박혜숙·원미순 2010).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공존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는 인간 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혹은 시민의식과도 관련된다. 이는 시대적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인 세계화 시민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간주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으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11)가 실시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하

였으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인 151,154명으로 2010년 대비 23.9%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다문화 및 세계화시대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다문화 수용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초4 및 중1 코호트를 사용하여 이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개인특성(성별, 독서시간, 해외경험 유무, 시민의식, 학업성취도) 및 부모의 특성(부모의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특히 공동체의식에 나타난 시민의식의 변화 정도와 시민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질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및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개인 및 환경특성 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2. 2차년도 시민의식, 해외방문경험 및 독서시간을 통제할 후, 1차년도의 시민의식, 해외방문경험 및 독서시간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관련문헌 연구

1.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라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자신과 다른 구성원을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라는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윤상우와 김상돈(2010)은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태도 즉,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의 증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고 있다.

황정미·김이선 등(2007; 윤인진·송영호 2009)은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고 있다.

호드킨슨(Hodkinson 1988)은 다문화를 빈곤, 원어(native languages), 신체·정서적 장애(physical and emotional disabilities), 인종·민족(ethnic and racial cultural divers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길레스와 셔만(Giles and Sherman 1982)은 문화적 수용성은 한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acceptance)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방성과 다른 문화에의 노출이라고 한다.

민무숙·안상수 등(2010)의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도(Korean Multiculturalism Scale; KMCI)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적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다문화 수용성을 다양성과 관계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양성이란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의 가치 등을 우리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도를 일컬으며, 관계성은 다른 인종문화집단과 함께 더 큰 사회에 참여하고 결합하려는 것에 대한 선호정도를 의미한다. 강혜정과 임은미(2012)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다문화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대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내적 특성이며, 다문화 수용성/태도가 높다는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혜숙(2013)은 한국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길레스와 셔만(Giles and Sherman 1982)의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의 차이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정의하고 인지,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 척도가 단일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문항과 요인들 간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탐색적 및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세 측면의 문항이 명쾌히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문항내용을 중심으로 인지, 인지-정의 측면, 행동측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와 정의적 측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점이 이전 연구(박혜숙·원미순 2010)와 비슷한 점이 있었으나, 내용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해당 문항을 인지, 정의, 행동측면의 문항으로까지 확장한 점에서 넓은 의미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하여 조사한 윤인진·송영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수인종 집단들이 우리와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정부가 보호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찬성 40.9%, 반대 15.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태도는 남성, 연령이 젊을수록, 보수적 성향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그리고 종족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한국인의 다문화지향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현(2007)의 한국인의 다문화 시 티즌십 관련 인식조사 연구에서는 서구문화권과 국민에 대해서는 개방성을 나타내는 반면, 동남아시아 등의 후진국의 문화와 국민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보였고, 외국인들을 위한 적극적(affirmative action)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대하여 인터뷰한 연구에 의하면 (정미경 2008) 국내 대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견해는 영어사용 능력과 결부되며, 영어와 백인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학생들은 다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좁고, 폭넓은 지식교류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의 학풍이 오히려 영어교육에 대한 집착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았다.

임성택(2008)의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공동학업, 국내전입, 공동생활, 국제결혼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국제교류 수용도에 관하여 청소년을 대상(중·고등 및 대학생)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학생들은 교류 대상 집단, 인종·민족들에 대한 편향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특히 학업과 관련된 교류는 가장 높은 국제 교류 수용의사로 보였고 그 다음이 이민 생활 순이었으며, 국제결혼은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교류 대상별 집단으로는 백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흑인은 다음 순으로 두 집단 간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동인은 교류 대상 집단으로 가장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종에 매우 편향적인 수용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임성택 2008).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 우리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박혜숙·원미순 2010).

다문화 사회에 잘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수용성 및 교육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국가수준의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세계시민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의 1년 동안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변인들이 2차 년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추후의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김리카와 노만(Kymlicka and Norman 1995)에 따르면, 시티즌십(citizenship)은 법적지위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legal-status)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as-desirable-activity)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최현 2006, 2007). 시티즌십(citizenship)을 우리말로 정의하는데 있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회과학자들(최현 2007)은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citizenship’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지위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만을 한정적으로 담아내는 개념의 성격이 크고, 일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성(civility)’이라는 용어는 법적지위로서의 시티즌십(citizenship)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최현 2006, 2007). 즉, 시민됨의 자격과 소속 및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 지위와 제도적 장치를 나타내는 시민권(citizenship)과 시민의 자질(disposition), 덕성(virtue), 시민행동(action)과 시민의식(manner)이 포함된 개념으로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덕성을 일컫는다(채진원 2013). 이는 개별적인 수준의 자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로서, 공동체의식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환경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활습관과 생활태도와 관련되어 있다(채진원 2013).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의 욕구가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역사, 시간, 경험을 공

유하고 있고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MaMillan & Chavis 1986; 최형임·문영경 2013)이라고 한다. 공동체의식은 이웃이나 특정지역과 같은 지리적 개념의 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의 특성에 관계되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MaMillan & Chavis 1986).

공동체 의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시민의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공간과 삶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세계화시대에는 개인이 지방과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 시민성이 확장되는 ‘글로벌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민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타인과의 차이,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공감의 능력을 갖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채진원(2013)은 글로벌 시민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능력으로, 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접근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 ② 타인과 협동하고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③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 ④ 비판적 사고능력, 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⑥ 환경보존을 위해 소비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⑦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줄 아는 능력, ⑧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세 번째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다문화 수용성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히터(Heater 1996)는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식은 ① 인류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② 세계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③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어야 하며 ④ 개인이 세계적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민의식으로 인류공동의 문제인 기아, 질병, 인종차별, 환경문제 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세계시민의식의 일환으로 지구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지은림·신광석 2007).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공동체 의식을 세계시민의식(시민성)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동체의식은 아동청소년패널 2차 자료에는 단지 4문항(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자절약,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었으며, 네 문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식을 나타내는 문항이 “시민의식”의 하위구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최현(2006, 2007) 및 채진원(2013)에서 정의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민의 의식과 덕성을 나타내는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시민의식’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 개념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봉사 및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과 의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책임성과도 관련이 있다(Berkowitz 1965; 김진숙 1999). 즉 곤경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의 지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Greenberger 1982; 조학래 1996). 고우와 맥클로스키 등(Gough and McClosky et al. 1952)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학문적인 추구와 목표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학생들은 강한 정의감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학래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의식 수준은 한 나라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와 선진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시민의식 수준은 해당 국가의 국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원미순·박혜숙 2010). 한편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시민의식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Torny-Purta

2001; 원미순·박혜숙 2010).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출 때, 그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은 한 국가의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원미순·박혜숙 2010). 시민의식은 그 특성상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기본 가치들은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가 되고 있다(모경환·김명정의 2010; 원미순·박혜숙 2010). 본 연구에서는 초4 및 중1 코호트의 2차년도와 1차년도의 시민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후에도 이전 해의 시민의식이 2차년도와 1차년도의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독서

여러 선행연구는 독서량은 세계에 대한 지식, 성취도(Cunningham & Stanovich 1997), 성인의 취업 및 사회참여(Guthrie and Schafer et al. 1991)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독서를 통하여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가치 습득의 기회를 갖는다(Jackson 2001). 즉 자기 자신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택할 수 있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박혜숙·원미순 2010). 갈다(Galda 1998)는 문학작품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코다(Yokota 2008)는 자신을 반추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문화 및 외국 문학작품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독서를 통하여 다른 관점(perspective taking)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된다. 헌터와 엘리

아스(Hunter and Elias 1999)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의 총체로 보았다. 다문화적 민감성/수용성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정체감인식 및 자기 자신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문화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효과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박혜숙·원미순 2010; Kim and Green et al. 200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에는 학습관련 이외의 독서활동 시간에 관한 정보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4. 기타 관련변인 (해외방문경험, 성차)

윤인진·송영호(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지향성에 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 중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을 탐색하는 이유는 외국문화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공동체의식은 다른 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방문경험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라이트(Wright 1976)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욱 책임감이 있고 인간관계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압력의 영향으로 여성이 양육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이타적 경향을 갖는 것이다(조휘일 1990). 한편 자원봉사 참여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숙·원미순 2008, 2010). 지은림(2007)의 지구시민성 면에서도 여학생의 의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성차가 있으리라 간주하였다. 그러나 박혜숙·원미순(2010)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더욱 책임감이 있고 인간관계에 더 깊

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Wright 1976). 이런 이유로 다문화 수용성에도 성차가 있으리라 간주된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경험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으로 간주되어 초4 코호트(2년 자료)와 중1코호트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1차년도 시민의식의 효과가 2차년도의 시민의식을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한국아동정책연구에서 조사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KCYPS)의 초4코호트 및 중1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를 장기적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가능한 1차 및 2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층화다단계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한 확률적 표집으로 결과를 전국의 동일 발달단계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4코호트 2,378명으로 남학생은 1,242(52.2%), 여학생 1,136(47.8)이며, 중1코호트는 2,352명으로 남학생 1,176(50%)명, 여학생 1,175(50%)명으로 구성되었다.

2. 도구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인발달의 하위영역, 즉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이 포함되었고, 발달환경의 하위영역으로는 가정환경, 또래환경, 교육환경, 지역사회 및 청소년 활

동·참여 환경, 그리고 매체환경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하위 영역 안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학력, 아동의 학교경험으로는 성취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중1 코호트의 경우는 다양한 학교 경험(extracurricular activity) 즉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초등학교 코호트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두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공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변인(성별, 부모 학력, 해외여행 유무, 성취도, 시민의식)만을 선정하여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2회 자료와 중1코호트의 2회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자료 코딩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는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동일한 문항이 5개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5개의 문항(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④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 수 있다. 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 수 있다.)으로 구성되었기에 1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및 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평균사용여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학력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의 선택지의 낮은 번호(①)이 '매우 그렇다' ④가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되어 있어서 역코딩을 하였고 높은 점수는 높은 동의정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1, 2차 설문지에는 시민의식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이 사용되었기에 시민의식(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동체의식(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자절약,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성별은 남학생은 1로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부모의 학력은 1은 중졸이하, 2는 고졸, 3은 전문대졸, 4는 4년제 대졸 5는 대학원졸 이상으로 코딩이 되었고, 두 사람의 학력 평균을 사용하였다. 독서시간은 주중, 주말의 전체 독서시간의 총 량(분)을 사용하였고,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은 해당되는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성취도는 각 코호트의 2차년도에만 수집되었으며 다른 친구와의 상대적 비교를 나타내는 정도로(즉 다른 친구들에 대해 공부를 얼마나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로 묻고, ①매우 잘했다, ② 잘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못한 편이다, ⑤매우 잘못했다)로 코딩되어, 이도 역코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 분석은 위계적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부모의 학력, 그리고 2차년도의 변수(y2해외경험 유무, y2독서시간, y2시민의식, y2성취도)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1차적으로 회기분석을 실시한 후, 2차년도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1차년도 변수들(y1해외경험유무, y1독서시간, y1시민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를 통하여 개별문항에 대한 정규성을 살펴보았다. 초등 2차 독서시간에 대한 첨도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정규성가정을 만족하였다. 상관관계도 0.5이상 된 경우가 없었고, 다변량공선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VIF<10) 실제 분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V. 연구결과

1. 초등학교 코호트

우선적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의식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들의 한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문화 수용성 5문항의 평균점수와 시민의식 4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및 시민의식에 사용된 문항들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alpha > 0.7$, <표1> 참고).

<표1>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변수	문항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explained
초등5다문화 수용성	5	0.734	60.47
초등5시민의식	4	0.791	61.72
초등4시민의식	4	0.739	55.83
중2 다문화 수용성	5	0.844	62.87
중2 시민의식	4	0.774	59.68
중1시민의식	4	0.732	55.54

초5학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2.93(0.43)으로 중간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시민의식은 2.96이었고, 5학년의 경우는 3.0으로 자신의 평가한 수준은 약간 향상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약 16%가 해외여행을 경험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 5학년 때까지 약 11%에 해당되었다. 독서시간은 110.76(90.12)로 주당 평균 2시간 못 미쳤으나,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100.62(90.33)으로 이보다 더 줄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표준편차가 더 컸으며, 왜도 첨도도 더 높았고, 이는 한 아동의 독서시간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에 기인하였다. 시민의식, 1차 2차 및 2차년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각각 1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문항의 총 평균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표2> 참고).

<표2> 초등4학년 코호트 기술통계

	Min	Max	Mean	SD	Skew	Kurto
성별	0	1	0.52	0.50	-0.09	-1.99
부모교육수준	1	5	2.96	0.96	0.09	-1.27
y1독서시간	0	650	110.76	90.12	1.53	3.29
y1해외여행여부	0	1	0.16	0.37	1.85	1.44
y1시민의식	1	4	2.96	0.62	-0.34	0.14
y2독서시간량 분	0	1020	100.62	94.33	2.32	10.12
y2해외여행유무	0	1	0.11	0.32	2.43	3.92
y2시민의식	1	4	3.00	0.63	-0.26	0.16
y2성취도5	1	5	3.70	0.69	-0.35	0.40
y2다문화수용성	1.4	4	2.93	0.43	-0.27	0.15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성별, 부모교육 해외여행을 제외하고 독서시간, 시민의식, 성취도는 모두 다문화 수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1차년도 자료를 통제한 후에도 이들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2$). 비록 그 효과크기는 작았으나, 1차 년도의 자료 중 시민의식만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차년도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하였다(<표3>참고).

<표3> 초등4코호트 위계적 회귀모형

초4		B	Std. Error	Beta	t	p
1	(Constant)	1.79	0.05		32.85	0.000
	재코딩 성별	-0.01	0.02	-0.01	-0.63	0.528
	중부모학력수준	-0.01	0.01	-0.02	-0.83	0.404
	y2독서시간량 분	0.00	0.00	0.04	2.25	0.024
	y2해외여행유무	0.00	0.03	0.00	-0.09	0.925
	y2시민의식	0.30	0.01	0.43	21.82	0.000
	y2성취도5	0.07	0.01	0.11	5.51	0.000
2	(Constant)	1.71	0.06		28.92	0.000
	재코딩 성별	0.00	0.02	0.00	-0.26	0.792
	중부모학력평균	-0.01	0.01	-0.02	-0.82	0.412
	y2독서시간량 분	0.00	0.00	0.05	2.43	0.015
	y2해외여행유무	0.00	0.03	0.00	-0.04	0.968
	y2시민의식	0.28	0.01	0.41	19.51	0.000
	y2성취도5	0.07	0.01	0.11	5.19	0.000
	y1독서시간	0.00	0.00	-0.03	-1.54	0.124
	y1해외여행여부	0.00	0.02	0.00	-0.18	0.859
	y1시민의식	0.05	0.01	0.08	3.68	0.000

2. 중1 코호트

중1학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2.79(0.62)으로 중간수준이었으나 초등학교 코호트에 비하여 더 낮았다. 중학교 1학년의 시민의식은 2.76(0.6)이었고, 2학년의 경우는 2.72(0.6)로 자신의 평가한 수준은 약간 줄어들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약 22%가 해외여행을 경험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이후 2학년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은 10%에 해당되었다. 중1학년 때의 독서시간은 86.23(87.52)로 초4코호트의 경우보다 더 적었으며, 중 2학년의 경우 79.92(86.83)으로 중1학년 때보다 더

줄었다. 초4코호트처럼 시민의식, 1차 2차 및 2차년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각각 1요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문항의 총 평균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표4> 참고).

<표4> 중1코호트 기술통계

	Min	Max	Mean	SD	Skew	Kurto
재코딩 성별	0.00	1.00	0.50	0.50	0.00	-2.00
중부모학력평균	1.00	9.00	2.96	1.06	1.19	4.72
y1독서시간	0.00	840.00	86.23	87.52	1.98	6.90
y1해외여행여부	0.00	1.00	0.22	0.41	1.38	-0.09
y1시민의식	1.00	4.00	2.76	0.60	-0.09	0.24
y2독서시간량 분	0.00	740.00	79.92	86.83	2.16	8.44
y2해외여행유무	0.00	1.00	0.10	0.30	2.64	4.99
y2시민의식	1.00	4.00	2.72	0.60	-0.15	0.53
y2성취도5	1.00	5.71	3.00	0.87	0.13	0.00
y2다문화 수용성	1.00	4.00	2.79	0.62	-0.10	0.43

중학교 1학년 변수의 경우, 부모교육, 해외여행 및 성취도를 제외하고 성별, 독서시간, 시민의식은 2학년 때 다문화 수용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통다문화 수용성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독서시간, 시민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독서시간의 효과는 매우 작았다.

2차년도 자료를 통제한 후에도 1차년도 시민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6$). 1차년도의 자료 중 1학년 때의 해외여행 경험도 2차년도 다문화 수용성을 예측하였다(<표5> 참고).

<표5> 중1코호트 위계적 선형모형

순서		B	SE	Beta	t	p
1.00	(Constant)	1.61	0.09		17.69	0.00
	재코딩 성별	-0.09	0.02	-0.08	-3.80	0.00
	중부모학력 평균	0.02	0.01	0.04	1.93	0.05
	y2독서시간 량 분	0.00	0.00	0.04	1.98	0.05*
	y2해외여행 유무	0.06	0.04	0.03	1.46	0.14
	y2시민의식	0.44	0.02	0.43	20.88	0.00
	y2성취도5	-0.03	0.02	-0.04	-1.75	0.08
2.00	(Constant)	1.49	0.10		15.02	0.00
	재코딩 성별	-0.09	0.02	-0.08	-3.73	0.00
	중부모학력 평균	0.02	0.01	0.03	1.32	0.19
	y2독서시간 량 분	0.00	0.00	0.03	1.43	0.15
	y2해외여행 유무	0.03	0.04	0.02	0.70	0.48
	y2시민의식	0.42	0.02	0.41	18.70	0.00
	y2성취도5	-0.02	0.02	-0.03	-1.46	0.14
	y1독서시간	0.00	0.00	0.01	0.61	0.54
	y1해외여행 여부	0.07	0.03	0.05	2.12	0.03
	y1시민의식	0.06	0.02	0.06	2.65	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타민족과 타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과 관련되는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세계시민의식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는 공동체의식을 비롯한 여러 변인들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동 및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발달은 사회적 정체성 확립에 상당히 중요하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심리적 반응으로 사회성과 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최형임·문영경 2013).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의 사회 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중화·유희철 2009), 청소년의 외로움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Pretty and Andrews et al. 1994). 오늘날 입시교육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사회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로 나타난 현실에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은 함양될 필요가 있다(김선숙·안재진 2012).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협동, 신뢰, 시민의식 등이 성숙한 삶을 설계할 줄 아는 미래지향적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육성할 필요가 높은 상태이다. 특히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 65개국이 참여한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 PISA(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와 국제 교육성취협의회(IEA)에서 2009년 실시한 국제시민교육 및 시민의식 조사(Schulz and Fraillion et al.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최상위이지만, 더불어 사는 능력은 최하위권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 나타난 시민의식의 변화가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질반적으로 초4패널에 비하여 중1패널의 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은 낮았다.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및 공동체 측면의 시민의식은 낮아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고학년인 중학생들이 현실에 기반한 자기평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들이 더 낮은 자기인식에 기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비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더 낮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시민의식은 1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 시민의식은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중2 때의 시민의식

을 통제한 후에도 중1 때의 시민의식은 중2 때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시민의식의 효과는 유사하였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보인다. 2차년도와 독서시간도 1차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사교육관련 연구(최상근 2003)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보낸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독서시간이나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어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비행도 야기된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우, 만족도 높다고 한다. 즉,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우,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학습활동을 열심히 하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한 학교생활만족도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형임·문영경 2013). 이런 이유로 학교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탐색과 더불어 학교 및 방과후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아동 패널에서는 중1패널과 달리 체험학습경험, 동아리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비교목적으로 초등4패널에 사용하지 않은 변인의 탐색은 하지 않았다. 추후 장기적인 변화를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시간사용 변인도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혜정·임은미, 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pp. 35-57.

김진숙·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pp. 339-363.

김중화·유희철, 2009, “청소년 수영교실 참여자의 또래애착이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지』, 35, pp. 609-619.

김진숙, 199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대인 및 사회적책임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모경환·김명정·송성민,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pp. 77-101.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박혜숙, 2013, “대학생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2) pp. 219-248.

_____,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pp. 303-325.

_____,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 225-245.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pp. 91-117.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 대회 자료집 pp. 579-591.

_____,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pp. 143-192.

임성택, 2008,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한국 학생들의 국제교류 수용도 분석: 교류연역 및 대사 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8 pp. 1-20.

지은림, 2007, “대학생용 지구시민 척도 개발의 타당화 및 관련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0 pp. 151-171.

_____, 선광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pp. 115-134.

정미경, 2008, 『주한 외국유학생 현황 및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8-5-22.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휘일, 1990,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휘일,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채진원, 2013, “세계화시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시민교육적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39 pp. 5-40.

최상근,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공청회 자료집 (RM2003-32-5).

최현, 2006, “한국 시티즌십(Citizenship) 1987년 이후 시민권 제도의 변화와 시민의식”, 『민주주의와인권』, 6(1) pp. 171-205.

_____,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pp. 147-243.

최형임·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1) pp. 189-2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 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 .
- Berkowitz, L.,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Berkowitz L.(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 Cunningham, A. E. & Keith E. Stanovich, 1997, "Early reading acquisition and its relation to reading experience and ability 10 years l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 6 pp. 934-945.
- Galda, L., 1998, "Mirrors and windows: Reading as transformation", in. T. E. Raphael & K. H. Au (eds.), *Literature-based instruction: Reshaping the curriculum*, Norwood, MA: Christopher-Gordon.
- Giles, M. B. & Thomas M. Sherman, 1982, "Measurement of multicultural attitudes of teacher traine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5 No. 4 pp. 205-209.
- Gough, H. G., McClosky, Herbert and Paul E. Meehl, 1952, "A personality scale for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7(1) pp. 73-80.
- Greenberger, E., 1982, "Education and acquisi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in. D. McClelland(ed.), *The Development of Social Maturity*. New York: Irvington.
- Guthrie, John T., Schafer, William D., and Susan R. Hutchinson, 1991, "Relations of document literacy and prose literacy to occupational and societal characteristics of young black

and white adul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26 Issue 1, pp. 30-48.

- Heater, D., 1996, *World Citizenship and Government: Cosmopolitan ideas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New York: St. Martins'press.
- Hunter, L. & Maurice J Elias, 1999, "Interraci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0 Issue 4 pp. 551-573.
- Inman, P. & Ernest Pascarella, 1998, "The impact of college residence o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39 No. 6 pp. 557-568.
- Jackson, S. A., 2001, "Using bibliotherapy with client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Vol. 57 Issue 3 pp. 289-297.
- Kim, B. S. K., Green, J. L. G. & Eileen F. Klein, 2006, "Using storybooks to promote multicultural sensitiv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34 Issue 43 pp. 223-234.
- Kymlicka, W. & Wayne Norman,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Beiner, Ronald (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cMillan, D. W. & Davi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pp. 6-23.
- Prettey, G. M. H., Andrews, L. & Chris Collette, 1994,

“Explor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2 Issue 4 pp. 346-358.

Schulz, W., Frailloon, J., Ainley, J., Losito, B. and David Kerr,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http://www.iea.nl/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Electronic_versions/ICCS_2009_Framework.pdf, 2013/08/02

Tomey-Purta, J., Schwille, J., & Jo-Ann Amadeo, 1999, *Civic education across countries: twenty-four national case achievement*. Amsterdam: IEA.

Wright, D., 1976, *The Psychology for Moral Behavior*,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

Yokota, J., 2008, *International Literature: Inviting Students into Global Community. Sharing the Looking Glass: Challenge, Risk, and Controversy in Children’s Literature*. Massachusetts : Christopher-Gordon Publishers, Inc.

Investigating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Receptivity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ark, Hye-sook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receptivity and civility/citizenship characteristics among different grade cohorts using a higher order regression mode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cohorts of elementary school 4th graders and middle school 1st graders over two years.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1) In the case of elementary 5th graders, controlling for gender, parental education, overseas travelling experience with parents, hours spent for reading, civility and citizenship values, academic achieve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receptivity score. (2) In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cohort, parental education and overseas travelling experi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effects of gender, hours spent for reading, and civility (civic) and citizenship values on multicultural receptiv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Compared to the elementary 4th grade cohorts, the 1st year middle school cohort’s level of civility and citizenship values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scores were low. (4) Female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cohort scored

higher in multicultural receptivity than male students, but the effect of hours spent for reading was very small. (5) The cohorts' 1st year scores seem to predict 2nd year multicultural receptivity both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s. Specifically, with the first-year middle school cohort, overseas travelling experience and civility and citizenship valu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multicultural receptivity. (6) Finally, in the case of the middle-school cohort, gender and the 2nd year civic and citizenship value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suggest that in-depth studies to enhance civility and citizenship values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are needed.

Keywords : civility (civic) and citizenship values, multicultural receptivity, hours spent for reading, overseas traveling experience, academic achievement